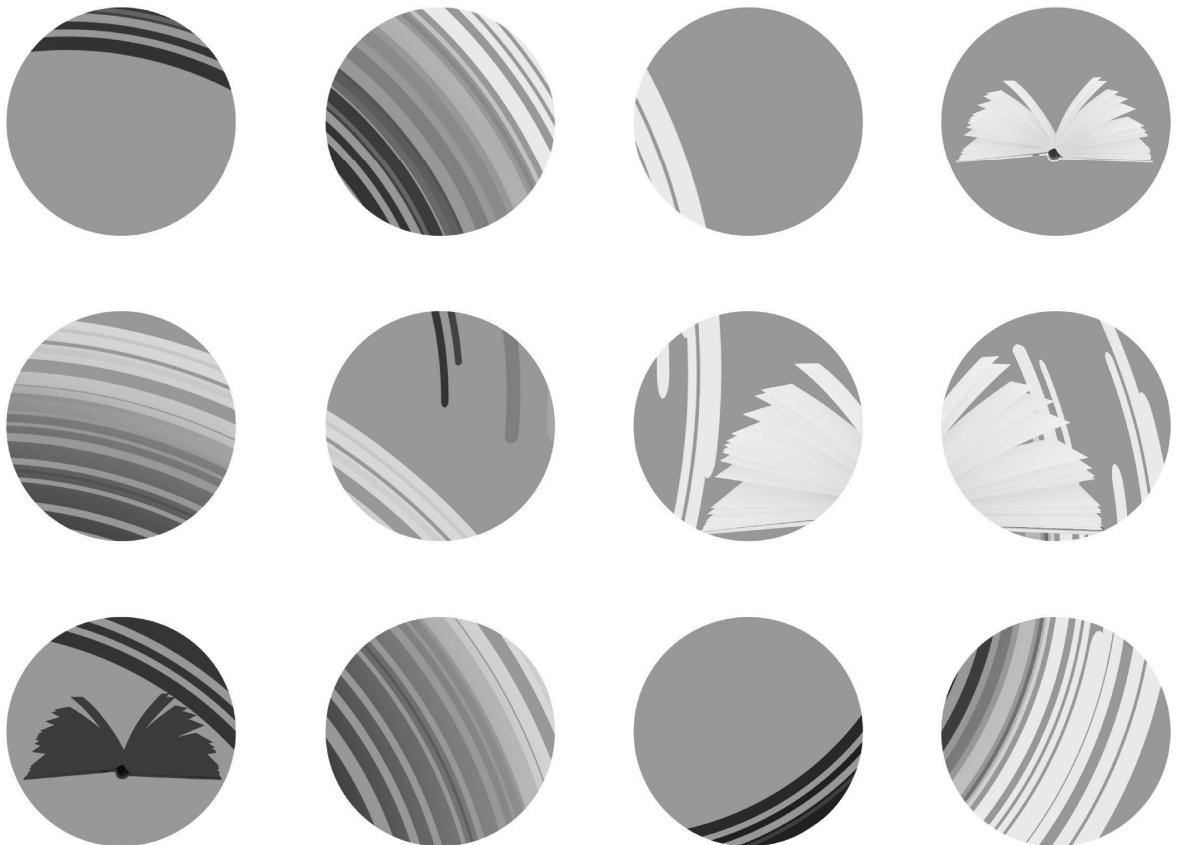


ER
2014-42-2861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평가결과보고서

2013. 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평가결과보고서

2013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관평가인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평가단장 :	박	준	훈
평가위원 :	공	종	구
	김	학	만
	박	찬	주
	윤	성	석

C . O . N . T . E . N . T . S

I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요

1.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시행 배경 및 근거 . 9
2.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목적 . 11
3. 평가내용의 구성 . 15
4. 인증 판정 . 21
5. 필수평가준거 . 27
6. 추진 현황 . 30

II

종합 결과

1. 인증 판정 . 39
2. 종합의견 . 42

III

평가영역별 결과

- 1영역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 46
- 2영역 교육 . 57
- 3영역 대학구성원 . 81
- 4영역 교육시설 . 102
- 5영역 대학재정 및 경영 . 116
- 6영역 사회봉사 . 129

표목차

[표 I-1]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의 구성.....	17
[표 I-2]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별 평가준거.....	18
[표 I-3] 기관평가인증 유형 및 인증 판정 기준.....	21
[표 I-4]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구수준.....	24
[표 I-5] 필수평가준거의 선정 근거.....	28
[표 I-6]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일정.....	32
[표 I-7] 현지방문평가 활동 일정: 1일차.....	35
[표 I-8] 현지방문평가 활동 일정: 2일차.....	36
[표 I-9] 현지방문평가 활동 일정: 3일차.....	37

그림목차

[그림 I-1] 평가내용의 구성 체계.....	15
[그림 I-2] 대학기관평가인증 유형.....	22
[그림 I-3] 인증 유형에 따른 인증기간.....	22
[그림 I-4] 대학기관평가인증 절차.....	31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요

1.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시행 배경 및 근거

가. 시행배경

1) 국내 대학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 국제적으로 낮은 고등교육 경쟁력¹⁾

-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59개 국가 중 2위
- 대학교육의 사회요구 부합정도: 59개 국가 중 39위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정원의 미충원 발생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 '90년 33.2% → '10년 79.0% → '11년 82.0%
- 대학 재학생 추정치: '11년 206만명 → '16년 202만명 → '20년 171만명 → '30년 125만명

2)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확산

○ 해외 유학 고등교육 인구 증가²⁾

- 지난 30년간 4배 증가: '80년 110만명 → '00년 210만명 → '10년 410만명

1) IMD(2011).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

2)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 규범

- 불로냐 프로세스 Bergen 회의(2005.5.19):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 UNESCO/OECD의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지침(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2005.12.30)
- 정부: 고등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포괄적 책임 요구
- 대학: 자체평가 및 인증평가를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 강화

나. 법적 근거

1) 기관평가인증제의 법적 기반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와 기관평가인증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대학은 자체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최소 2년 주기의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부가 인정한 평가기관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2007.10 신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07.5 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8.11 제정)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2008.12 제정)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2008.12 제정)

2)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86호)

○ 새롭게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 자체평가가 의무화되고 기관평가인증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게 됨.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인

정반기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2009년 정부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 시행기관 인정을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기관평가인증제의 시행기관으로 신청하였으며, 2010년 11월 11일 교육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하였음

- 대교협 평가원이 정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2011년부터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됨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함

2.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목적

가. 의미

- 기관평가인증(accreditation):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
 - 인증의 대상은 대학 일부분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기관 운용 전반임
 - 대학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함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부여함
- 인증의 획득
 - 대학이 대학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 요소(대학사명,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고등교육 관련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나. 기본방향

- 대학의 교육적 성과로서 학생의 학습성과를 중시(student learning outcomes)
 - 국가간 학생상호교류 및 학점인정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 통용성 고려
 - 교육의 여건과 함께 학생교육의 질에 초점을 둔 평가 지향
-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 발전 유도(true uniqueness)
 - 대학을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획일화시키기보다는 특성화 유도
 - 우리나라 대학의 설립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충족 이외의 모범사례 발굴
- 대학의 질 보증과 질 개선 지향(assurance & enhancement of quality)
 - 대학의 질을 기본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가에 우선적 초점
 - 대학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자율적인 질 개선 평가체제 정착 유도
- 대학의 최소기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부여(requirement of minimum)
 - 대학의 최소기본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인증
 - 최소기본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 보증 획득

다. 목적

세계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기본요건과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국제적인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음

- 대학교육의 질 보증과 질 개선
- 대학 자율성 확대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제고
- 대학교육 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라. 특징

○ 대학의 특성 반영 평가

- 평가대상 대학의 특성, 대학발전 및 특성화계획 등에 따라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일반평가준거를 대체·추가할 수 있음
 - ※ 단, 평가대상 대학이 일반평가준거를 대체·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타당한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

-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해당 대학 홍보 및 벤치마킹 정보 공유
- 인증 결과의 정부 행·재정적 사업과 연계(예: 교육역량강화사업, 학자금 대출 등)

○ 질적 평가 중심의 인증

- ‘기관평가인증’의 본래 의미와 목적에 충실한 평가, 기관의 질 보증을 판정해 주는 평가

○ 대학의 평가부담 경감: 대학 보유 기존자료 및 2년 주기 자체평가보고서 활용, 실재자료 중심 평가

- 평가대상 대학 중심 평가: 인증 본질에 부합되는 필수 사항에 대한 평가
- 보고서 작성 최소(paperless) 지향 평가: 인증을 위한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작성 최소화
- 실재자료 중심(authentic) 평가: 대학 보유 기존자료, 홈페이지 탑재자료, 자체 평가 보고서 등 실재자료 중심 평가를 통해 타당도 제고

마. 기대효과

○ 대학: 자기점검 및 자율평가 체제 구축

- 대학은 인증을 통하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하며 자체적으로 대학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

○ 사회: 대학교육의 질 보증과 신뢰 부여

- 대학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정보 제공
 -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알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의 책무성 강화
-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 부여
 - 대학의 인증여부는 산업체에서 직원 채용, 직원교육 위탁, 대학 재정 지원, 대학과 공동·위탁연구 등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

○ 정부: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부응
 - UNESCO/OECD의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지침」 등이 요구하는 정부의 포괄적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부응
- 대학 지원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 확보
 - 정부의 각종 행·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대학선정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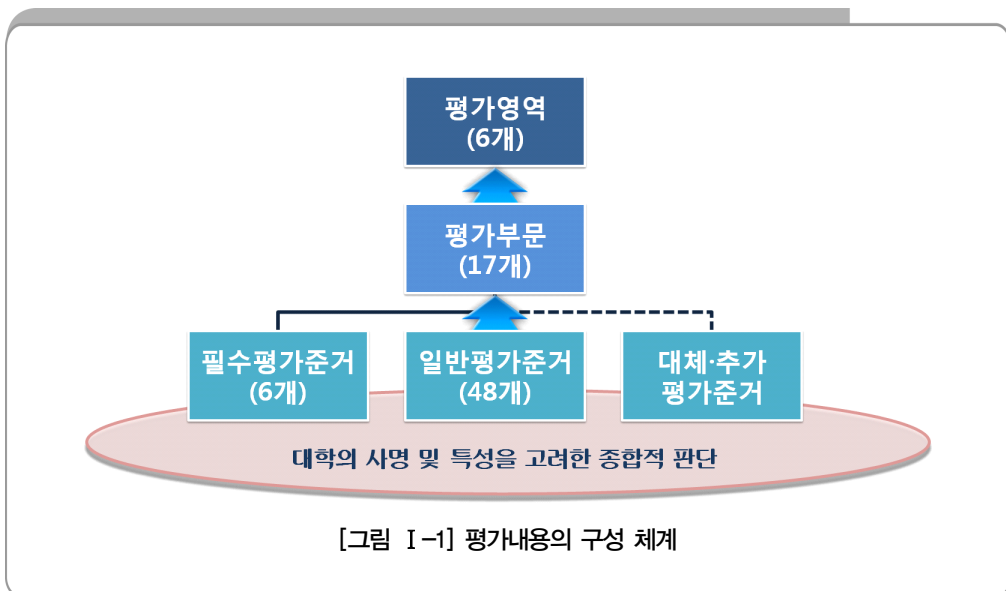
○ 국제사회: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구축

- 국제사회에서 학생들의 대학간 교류 또는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이동에 있어, 인증 결과의 국가간 상호인정 체제가 필요함. 이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인적자원의 이동을 촉진함

3. 평가내용의 구성

가. 평가내용의 구성 체계

- 평가의 내용은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와 ‘평가준거(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임



-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 대학의 교육활동 및 운영에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평가의 범위와 대상의 선정 즉,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일은 기관평가인증의 우선 고려사항임
 - 기관평가인증의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과 교육목적, 교육프로그램, 인적·물적 인프라, 행·재정지원 등의 대학운영의 주요 영역을 우선 고려하고, 주요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의 비중을 고려하였음

- 즉, 대학운영의 주요 영역을 인증의 ‘평가영역’으로, 주요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평가부문’으로 분류하여, 기관평가인증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영역과 평가부문의 2단계로 설정하였음
- 평가영역, 평가부문별 충족 여부에 대한 인증기준의 진술
 - 인증기준은 교육의 질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체 대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진술문으로 제시하였음
 - 인증기준은 최상위 단계인 평가영역별로 제시한 한편, 평가영역 하위 구성요소로 평가부문을 설정하여 평가부문별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인증기준을 제시하였음
 - 인증기준의 달성 여부는 평가준거의 충족 여부에 의해 판단됨

○ 평가준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평가영역과 평가부문의 각각에 대하여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인증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평가부문별로 평가준거를 제시하였음
- 평가준거는 평가영역, 평가부문에 대한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평가준거는 대학의 책무성 이행의 형태로 기술하였음
- 평가준거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달성 목표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점검 및 진단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가급적 하나의 평가준거는 하나의 내용만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음
- 평가부문별로 다수의 평가준거를 포함함
- 편람에 제시된 평가부문의 평가준거 외에 대학의 특성화·차별화 방향(특성·비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준거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단, 필수평가준거는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모두 포함)
 - 대학이 평가준거를 대체·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대체·추가 평가준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준거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인적·물적 여건, 재정지원, 목표대비 추진 실적 등

나.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의 내용 구성

○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은 <표 I-1>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표 I-1>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의 구성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수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2
	1.3 자체평가	1
2. 교육	2.1 교육과정	7
	2.2 교수·학습	3
	2.3 학사관리	4
	2.4 교육성과	2
3. 대학구성원	3.1 교수	8
	3.2 직원	3
	3.3 학생	4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
	4.2 교육지원시설	3
	4.3 도서관	1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4
	5.2 재정 편성 및 집행	3
	5.3 감사	2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2
6개	17개	54개

○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별 평가준거는 <표 I-2>와 같음

<표 I-2>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별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2.2 교수·학습	2.2.1 수업 규모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2.3 학사관리	2.3.1 학사관리 규정
		2.3.2 성적관리
		2.3.3 수업평가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2.4 교육성과	2.4.1 졸업생의 취업률
		2.4.2 교육만족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3. 대학구성원	3.1 교수	3.1.1 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준거>
		3.1.2 교원임용의 절차와 방법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3.2 직원	3.2.1 직원 규모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3.3 학생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4.1.2 강의실 확보율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4.2 교육지원시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4.2.2 학생 복지시설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4.3 도서관	4.3.1 도서관 운영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사립대)
		5.1.4-1 세입 중 기부금 비율(국공립대)
		5.1.4-2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사립대)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5.2.2 교육비 환원을 <필수평가준거>
		5.2.3 장학금 비율 <필수평가준거>
	5.3 감사	5.3.1 감사제도
		5.3.2 감사결과 활용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6.1.1 사회봉사 정책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평가영역: 6개	평가부문: 17개	평가준거: 54개(6개 필수평가준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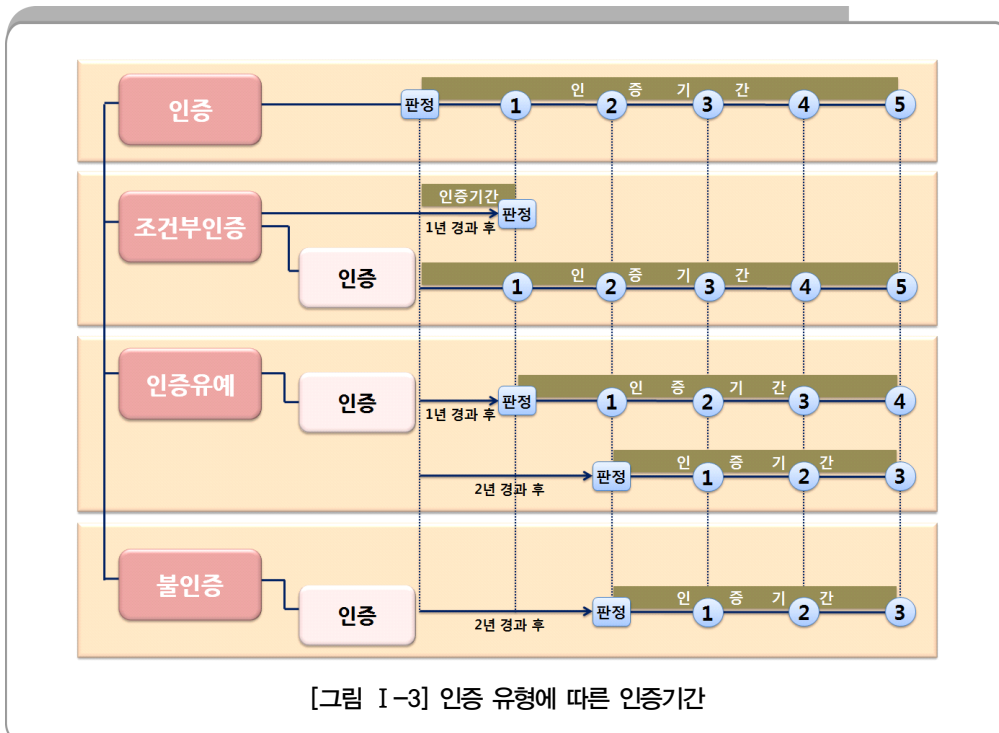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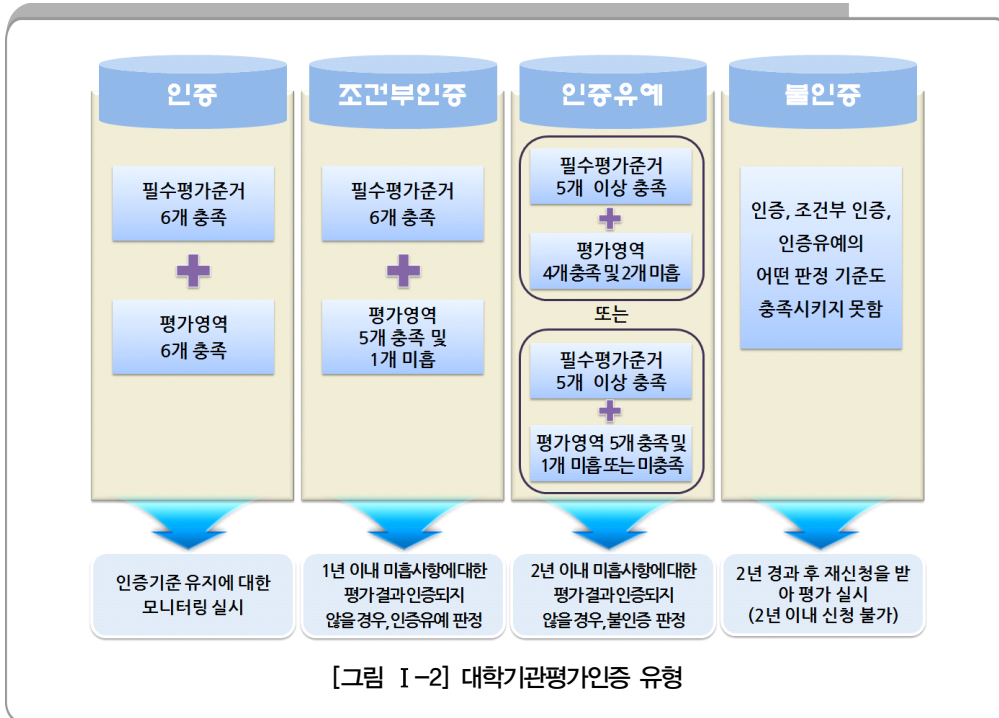
4. 인증 판정

가. 인증 유형 및 판정 기준

-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대한 인증 여부를 판정함
- 기관평가인증 유형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구분됨.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I-3〉 대학기관평가인증 판정유형별 판정기준 및 조치사항

유형	인증 판정 기준	인증 기간 및 추가 조치사항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여건이 법정기준에 비추어 양호하고,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모든 영역에서 만족함 ▶ 6개 필수평가준거가 모두 충족이고 6개 평가영역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기간 5년 ▶ 인증기준 유지에 대한 2년 후 모니터링 실시
조건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여건이 법정기준에 비추어 양호하나,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이 미흡함 ▶ 6개 필수평가준거가 모두 충족이고 5개 평가영역 충족 및 1개 평가영역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기간 1년 ▶ 1년 이내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 인증될 경우, 처음 조건부인증 판정 시점부터 5년간 인증 ▶ 1년 이내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 인증되지 않을 경우, 인증유예 판정
인증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여건과 교육의 질 개선노력이 전반적으로 요구되어 인증 판정을 유보함 ▶ 6개 필수평가준거가 충족이고 4개 평가영역 충족 및 2개 평가영역 미흡 ▶ 5개 필수평가준거가 충족이고 4개 평가영역 충족 및 2개 평가영역 미흡 ▶ 5개 필수평가준거가 충족이고 5개 평가영역 충족 및 1개 평가영역 미흡 또는 미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내 미흡 사항 개선 후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 실시 ▶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 인증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년-인증유예기간) 인증 ▶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 인증되지 않을 경우, 불인증 판정
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여건이 법정기준에 비추어 부족하고,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영역의 일부가 매우 미흡함 ▶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의 어떤 판정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인증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신청을 받아 평가 실시(2년 이내 신청 불가) ▶ 2년의 경과 조치 기간 동안 해당 대학의 희망에 따라 컨설팅 실시 ▶ 재신청을 받아 평가한 결과 인증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3년간 인증



나. 평가내용 수준별 판정 체계

- 평가내용 수준별 구성체계는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의 3단계로 구성함
- 최하위수준인 평가준거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부문을, 평가부문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영역을 최종 판정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식(Bottom-Up) 평가 체계임
 - 평가내용 수준별 구성체계의 위계상 최하위수준인 평가준거에 대한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평가부문을 평가함
 - 평가내용 수준별 구성체계의 위계상 중간단계인 평가부문에 대한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영역을 평가함
 - 평가내용 수준별 구성체계의 위계상 최상위단계인 평가영역에 대한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대학에 대한 인증 여부를 판정함

1) 평가준거에 대한 판정

- 평가준거
 - 각 준거별로 평가준거의 충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점검사항으로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평가부문 판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평가준거는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준거의 2종류로 구분하고, 평가원이 최소요구수준을 제시함
 - 필수평가준거: 기관평가인증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평가준거로 6개 준거 모두 충족되어야 인증의 최소조건을 갖추는 것임
 - 일반평가준거: 대학의 특성, 대학발전 및 특성화계획 등에 따라 일반평가준거는 대체 및 추가할 수 있음
- 필수평가준거에 대한 판정
 - 필수평가준거는 교육여건 2개, 교육만족도 2개, 재정건전성 1개, 교육지원 1개 등 총 6개이며,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설립인가 관련 요구사항,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기준 등을 최소요구수준으로 결정함

-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구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최소요구수준의 80%~100%의 범위에 있고, 해당 준거의 질적 요소 평가결과가 탁월한 경우, 평가위원간의 합의를 통해 충족(P)으로 판단 가능함
- 필수평가준거가 포함된 평가부문 및 평가영역은 해당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구수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흡(W) 혹은 미충족(F)으로 판정함

〈표 I-4〉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구수준

구분	평가 준거	최소요구수준		법적 근거
		법령, 정부사업 등의 기준(A)	A의 80%수준 이상 +질적 평가	
교육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61.0% 이상	50.0% 이상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2063호, 2010. 2.26, 일부개정]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 4]
	교사 확보율	100.0% 이상	80.0% 이상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2063호, 2010.2.26, 일부개정] 제4조 관련 [별표 3]
교육 만족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0% 이상	76.0% 이상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기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70.0% 이상	56.0% 이상	전국 대학 최근 3년간 휴학률(100%-휴학률)
재정 건전성	교육비 환원율	100.0% 이상	80.0% 이상	등록금 전액이 학생 교육비에 사용됨을 원칙으로 함
교육 지원	장학금 비율	10.0% 이상	8.0% 이상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05.07, 일부개정] 제3조 제2항
판정 방법		정량적 판정	정량적·정성적 판정	

※ 대학설립·운영 관련 법령,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기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필수평가준거를 충족한 것으로 판정

※ 단, 해당 필수평가준거가 대학설립·운영 관련 법령,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기준 등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준거의 질적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충족 여부를 판정함

※ 산업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의 최소요구수준은 각각 법령 기준인 50.0%이상, 이에 80% 수준 이상인 40.0% 이상임

2) 평가부문 판정

- 평가부문: 각 평가부문별 평가준거의 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충족(P), 미흡(W), 미충족(F)으로 판정하고, 타 대학의 모범이 되는 경우 '모범사례'로 발굴함
- 평가부문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는 해당 평가부문을 구성하는 평가준거들의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충족(P), 미흡(W), 미충족(F)으로 판정
 - 충족(P)
 - 기본조건: 필수평가준거를 포함하는 평가부문은 해당 필수평가준거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3개 이하의 평가준거로 구성된 평가부문의 판정: ①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준거가 충족되어야 함, ② 미흡(W)인 평가준거가 1개인 경우에는 그 미흡의 정도가 대학의 역량과 노력을 감안할 경우 단기간 내에 충족이 가능하며, 대학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적 판단과 합의에 따라 해당 평가부문에 대해 충족(P) 판정을 할 수 있음
 - 4개 이상의 평가준거로 구성된 평가부문의 판정: ①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평가준거가 충족되어야 함, ② 미충족(F)인 평가준거가 없고 미흡(W)인 평가준거가 1개 이상이지만, 그 미흡의 정도가 대학의 역량과 노력을 감안할 경우 단기간 내에 충족이 가능하며, 대학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적 판단과 합의에 따라 해당 평가부문에 대해 충족(P) 판정을 할 수 있음
 - 미흡(W)
 -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준거가 미흡(W) 이상이어야 함. 단, 미충족(F)인 평가준거가 1개인 경우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평가부문을 미흡(W)으로 판정할 수 있음
 - 미충족(F)
 - 필수평가준거를 포함하는 평가부문에서 해당 필수평가준거가 미충족(F)인 경우
 - 평가부문별 평가준거의 평가결과와 대학의 역량과 노력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충족이 불가능하며, 대학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미충족(F)으로 판정함

- 국내 대학 상위 10% 평균 이상 또는 글로벌 200위권 내의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경우, 해당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기관, 시설 등의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 규정 및 지침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학의 고유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 대학 발전을 위한 계획 대비 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가 다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경우 등은 ‘모범사례’로 발굴함
- 평가부문별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해당 대학 홍보 및 타 대학에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

3) 평가영역 판정

- 평가영역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는 해당 평가영역을 구성하는 평가부문의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충족(P), 미흡(W), 미충족(F)으로 판정
 - 충족(P)
 - 기본조건: 필수평가준거를 포함하는 평가부문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평가영역별 평가부문은 기본적으로 모두 충족(P) 판정을 받아야 함. 단, 평가영역별 1개의 평가부문에 한해서 미흡(W) 판정의 사유가 경미하여, 개선이 확실시 되며, 대학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의 합의에 따라 해당 평가영역에 대한 충족(P) 판정을 할 수 있음
 - 미흡(W)
 - 평가영역별 1개의 평가부문에서 미충족(F) 판정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1년 이내의 기간에 미흡(W)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평가위원의 합의에 따라 해당 평가영역에 대해 미흡(W) 판정을 할 수 있음
 - 미충족(F)
 - 필수평가준거를 포함하는 평가영역에서 해당 필수평가준거가 미충족(F)인 경우
 - 해당 평가영역별 평가부문 중, 1개 이상이 미충족(F) 판정을 받은 경우

5. 필수평가준거

가. 필수평가준거의 의미와 목적

○ 의미

- 필수평가준거는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평가원이 제시한 최소요구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점검·진단사항을 의미함
 - ※ 일반평가준거는 대학의 특성, 대학발전 및 특성화계획 등에 따라 대체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목적

- 교육의 질 제고의 기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인증의 본래 목적 달성
 - 취약 교육여건 지표의 단계적 개선
 - 교육 수요에 대한 진단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촉진
 -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충 유도
- 인증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취약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 관련 정량기준 충족 여부를 전제 조건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증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평가영역과 평가부문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질적평가와 종합적 판단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 관련 논란의 최소화
- 인증결과와 각종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제도적 연계 토대 구축 및 온정주의 평가에 대한 의혹 해소
 - 글로벌대학순위평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정부의 각종 평가 사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포물러 지표를 평가 인증의 판정 기본 요건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증판정 결과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제도적 연계 필요조건 사전 정비
 - 교육여건, 교육만족도, 재정건전성, 학생지원 관련 최소요구조건 미충족 대학에 대한 불인증 판정을 통해 대교협 평가원의 인증이 회원대학에 대한 온정주의 평가라는 인식 해소

나. 필수평가준거 및 선정 근거

○ 선정 기본 원칙

- 대학설립 4대 기본 요건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취약한 교육여건 점검·진단사항
- 대학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교육 수요 내지 교육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의 질 관련 점검·진단사항
- 교육의 질 제고의 기반이 되는 교육재정 건전성, 학생지원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점검·진단사항

○ 필수평가준거 및 선정 근거

- 필수평가준거는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평가준거의 선정 근거는 <표 I-5>와 같음

<표 I-5> 필수평가준거의 선정 근거

구분	준거명	선정 근거
교육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대학설립 4대 요건 중의 하나임 • OECD 국가 교원 1인당 학생수 15.8명에 비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편제정원 기준)는 34.7명으로 매우 취약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4]에서 연도별 확보율(61%)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34.2% 정도인 상황임 • 향후 2020년 이후, 입학지원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법령기준 이상의 교원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교사 확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대학설립 4대 요건 중의 하나임 • 교사확보는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제4조 교육기본시설(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제4조 지원시설(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의 확보를 규정하고, 계열별 학생 1인당 확보 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학생수 대비 법정 최소 확보 면적이 공시되고 있음 • 교사는 교육·연구활동의 필요 공간이라는 점에서 교육여건 관련 주요 점검·진단사항으로 보고 필수평가준거로 선정함

구분	준거명	선정 근거
교육 만족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는 대학의 존립이유와 직결되며, 대학교육이 지니는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또한 우수한 대학일수록 정원내 신입생 충원이 잘되고, 학생들의 재등록 비율이 높으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적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음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대학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학평가에서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교육의 질 제고 촉진과 교육 수요를 진단·점검하기 위하여 필수평가준거로 선정함
재정 건전성	교육비 환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 및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는 중요한 부분으로 학교의 교육비 투자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대비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율을 산정하여 학교의 교육에 대한 투자 현황을 판단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61% 이상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며,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12,336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9,564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임 • 대학들이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최소한 학생등록금이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재정 집행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필수평가준거로 선정함
학생 지원	장학금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동기부여 측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고등교육 기회 확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특히 장학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사립학교는 현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필수평가준거로 선정함

6. 추진 현황

가. 신청 현황

- 신청대학: 85개교
 - 기본모형: 80개교
 - 대안모형: 5개교

나. 판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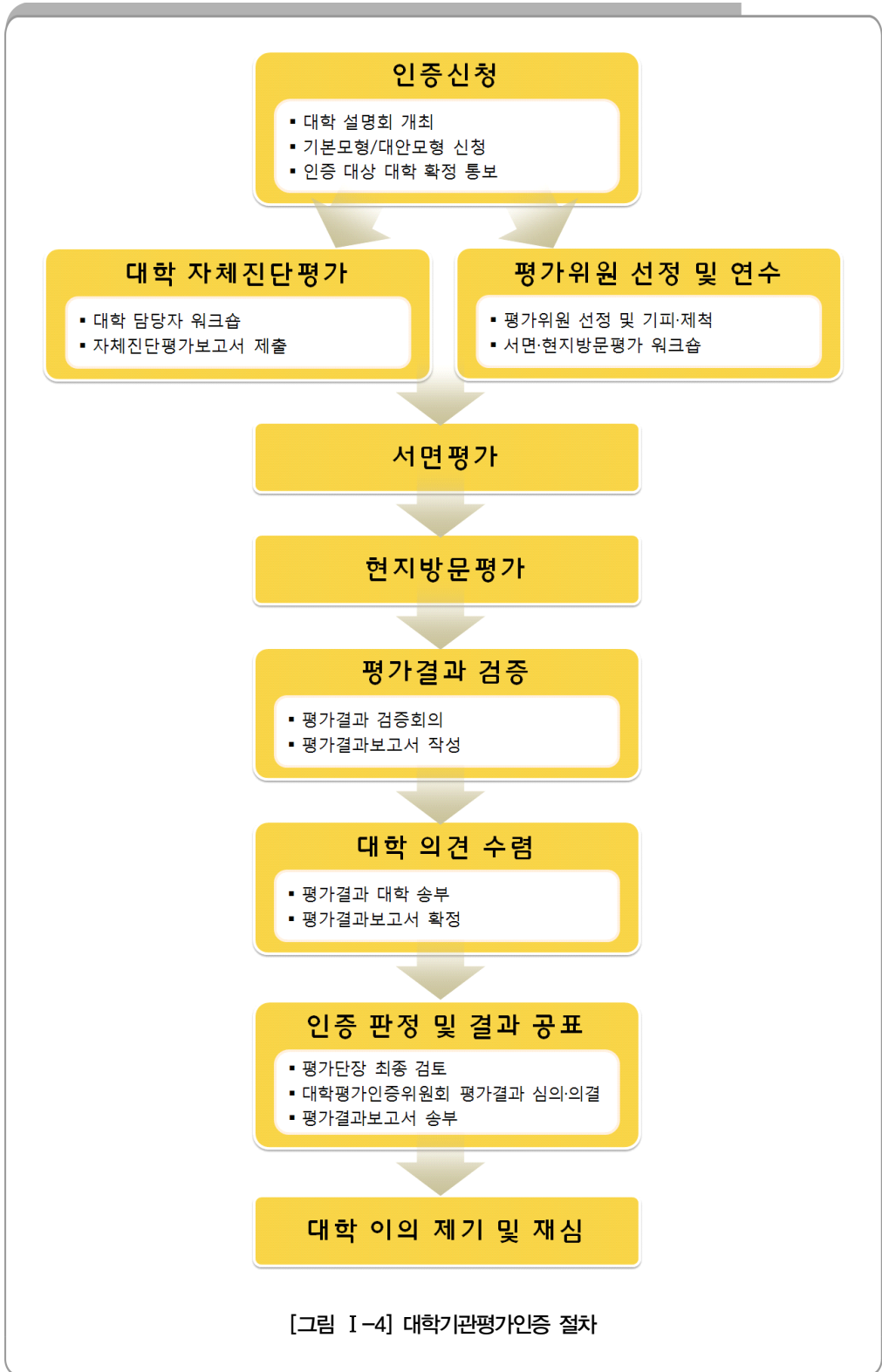
- 인증: 76개교
- 조건부인증: 3개교
- 인증유예: 6개교

다. 평가단 구성

- 각 5명씩 20개의 평가단, 총 100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됨

라. 추진 일정

-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그림 I-4]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됨



○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2차 신청대학 평가기간은 2013년 1월~2013년 12월임

〈표 I-6〉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일정

주요 내용	1차
기관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및 확정	
- 대학기관평가인증 설명회	1월 21일
- 2013년도 2차 신청 안내	2월 1일
- 대안모형 신청 마감	2월 22일
- 기본모형 신청 마감	2월 22일
- 평가인증대상 대학 확정 및 대체추가 평가기준 심의 결과 통보	4월 1일
대학평가인증 신청대학 담당자 워크숍 개최	4월 24일~25일 4월 29일~30일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 신청서 접수	6월 7일~17일
- 평가위원 후보자 평가대상 대학 배정	6월 18일~25일
-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대학 의견 수렴	6월 28일~7월 12일
- 평가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위원 후보자 의견 수렴	7월 19일~23일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	9월 13일
평가위원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워크숍 개최	9월 25일~27일
서면평가 수행	9월 25일~10월 9일
현지방문평가 수행	10월 10일~11월 1일
평가결과 검증회의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11월 7일~15일
평가결과보고서 대학 송부 및 대학 의견 수렴	11월 18일~27일
평가단별 대학 의견서 검토 및 평가결과보고서 확정	11월 28일~12월 13일
평가단장 최종 검토	12월 12일
대학평가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12월 16일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공표 및 인증서(패) 수여식	12월 27일
대학 및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 평가위원	12월 30일~'14년 1월 10일
- 대학	'14년 2월 3일~2월 14일

마. 주요 평가활동

1) 서면평가

○ 목적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학이 평가원에 제출한 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요구수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방문평가 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함

○ 주요 활동

- 대학 자체진단평가보고서 검토
- 대학 정보공시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 내용 검토
- 평가준거별 근거 자료 확인 및 미진한 내용 점검

2) 현지방문평가

○ 목적

- 대학 방문을 통해서 자체진단평가보고서의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함
- 평가준거에 대한 추가 요청자료 확인, 면담, 시설 방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대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현지방문평가를 통해서 모범이 되는 사례는 발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주요 활동

- 현지확인자료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 대학측 자체진단평가위원 및 관계자 면담
 - 평가시작 시 대학측 자체진단평가위원회와 평가단 간 ① 전체 평가 일정 조정, ② 현지확인자료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③ 면담대상자 확인 및 일정 조정, ④ 대학 시설 방문 장소 및 일정 논의를 통하여 2일 혹은 3일의 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함

- 대학구성원(총장, 교수, 직원, 학생) 면담
 - 평가단에서는 사전에 면담대상자 및 일정을 결정하여 대학에 안내하며, 대학에서는 면담대상자의 수업 및 업무 일정을 조사하여 면담 일정을 조정함
- 대학시설 방문
 - 대학 시설 방문은 평가준거의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만으로 제한하고, 대학에서는 사전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 방문 시간표를 마련해 놓아야 함
- 현지상호협의회
 -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현지상호협의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에 간략히 보고하고, 상호협의를 통하여 대학평가의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대학과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자 함
 - 현지상호협의회 식순

14 : 00	개회사 (기획처장/교무처장)
14 : 05	평가결과 강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진행: 평가단장 – 인사말씀 및 총평: 평가단장 – 영역별 강평: 각 5분, 영역별 평가위원 – 평가결과 종합정리: 평가단장
14 : 45	대학 의견 및 건의
14 : 55	폐회사 (기획처장/교무처장)
15 : 00	이동

○ 현지방문평가 시 유의 사항

- 세부 평가일정 준수
- 건전한 평가분위기 조성
 - 건전한 분위기에서 현지방문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윤리강령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침에 어긋나는 접대와 불필요한 환영행사를 절대 금함
 - 현지방문평가 전일 및 평가기간 중 대학측과 평가단과의 저녁식사는 절대 금함
 - 평가를 마친 후에 평가위원은 바로 숙소 혹은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고 대학 관계자 동행은 일체 금함

- 점심식사는 교내 교직원 식당 이용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간 중 모든 비용은 평가단에서 부담함. 어떠한 비용(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도 대학에서 지불하지 않도록 함

○ 현지방문평가 세부 일정

- 2박 3일

〈표 I-7〉 현지방문평가 활동 일정: 1일차

구분	시작 시간	주요 활동	비고
오전	08:00	○ 사전회의 및 이동	
	09:00	○ 총장 예방 ○ 평가위원 및 대학측 자체진단평가위원 상견례 ○ 대학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 대학경영, 발전계획, 특성화계획	• 대학현황 발표: 10분 이내
	09:30	○ 현지방문평가계획 협의 및 추가 요청자료 제출 확인 - 대학측 자체진단평가위원 및 관계자 면담 - 현지확인자료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 면담자 리스트 확인 및 면담 시간 협의	• 평가위원 및 대학측 자체진단평가위원 회의
	11:00	○ 평가위원별 평가활동 계획 및 시작	
	12:00	중식	(시간 엄수)
오후	13:30	○ 담당 평가영역별 평가활동 - 평가영역 전반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 - 대학 제출 증빙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 대학구성원 면담	• 대학측 자체진단평가위원 및 관계자 면담 • 대학구성원(총장, 교수, 직원, 학생) 면담
	15:30	○ 담당 평가영역별 평가활동 (계속) - 대학 제출 증빙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 대학구성원 면담 - 대학 시설 방문	• 대학구성원(총장, 교수, 직원, 학생) 면담 • 4영역: 대학 시설 방문
	17:30	○ 당일 평가활동 종합 및 평가계획 협의	• 평가위원 회의
	18:00	○ 이동 및 석식	
	20:00	○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협의	• 평가위원 회의

〈표 I-8〉 현지방문평가 활동 일정: 2일차

구분	시작 시간	주요 활동	비고
오전	08:00	○ 사전회의 및 이동	
	09:00	○ 담당 평가영역별 평가활동 - 평가영역 전반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 - 대학 제출 증빙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 대학구성원 면담 - 대학 시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측 자체진단평가위원 및 관계자 면담 • 대학구성원(총장, 교수, 직원, 학생) 면담 • 4영역: 대학 시설 방문
	12:00	중식	(시간 엄수)
오후	13:30	○ 담당 평가영역별 평가활동(계속) - 평가영역 전반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 - 대학 제출 증빙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 대학구성원 면담 - 대학 시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측 자체진단평가위원 및 관계자 면담 • 대학구성원(총장, 교수, 직원, 학생) 면담 • 4영역: 대학 시설 방문
	15:30	○ 담당 평가영역별 평가활동(계속) - 평가영역 전반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 - 대학 제출 증빙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 대학구성원 면담	
	17:30	○ 당일 평가활동 종합 및 평가계획 협의	• 평가위원 회의
	18:00	○ 이동 및 석식	
	20:00 ~21:00	○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협의	• 평가위원 회의

〈표 I-9〉 현지방문평가 활동 일정: 3일차

구분	시작 시간	주요 활동	비고
오전	08:00	○ 이동	
	09:00	○ 평가활동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활동 - 추가 요청자료 확인 - 추가 면담 - 평가결과 재확인	• 평가위원 및 대학관계자 협의
	10:30	○ 현지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보고서 내용 종합·정리	• 평가위원 회의
	12:00	중식	(시간 엄수)
오후	13:30	○ 현지상호협의회 발표 준비	• 평가위원 회의
	14:00	○ 현지상호협의회 -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 및 상호 협의 - 주요 개선방안 및 과제 논의 - 질의응답	• 평가위원 및 대학관계자 협의
	15:00	○ 이동	

3) 평가결과 검증 및 대학 의견 수렴

○ 평가결과 검증회의 운영

- 목적: 평가단간, 평가위원간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결과 검증
- 참여대상: 평가위원 전원
- 내용: 평가준거별 평가결과 확인(평가결과 판정 협의가 필요한 평가준거 추출)
평가기준 재검토 및 판정 조정
대학 추가 제출 자료 목록 작성(평가결과 판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만 요청)

○ 대학의 소명 대응

- 대학별 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결과를 해당 대학에 송부하고 사실 오류를 확인 또는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함
- 평가결과보고서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대학의 관계자로부터 관련 소명을 청취함
- 대학의 소명 대응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을 담당했던 평가단장과 평가위원들의 합의로 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수정·보완이 가능함

○ 평가단장 최종 검토

- 평가단별 결과 최종 확정

4) 인증 판정 및 결과 공표

○ 대학평가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 평가결과보고서 송부

5) 대학 이의제기 및 재심

- 인증 결과에 대한 대학의 이의제기는 인증 결과 공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재심위원회에서 대학의 이의제기 내용 및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함
- 재심 결과에 대한 해당 대학의 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주관으로 청문회를 개최함

II

종합 결과

1. 인증 판정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			

○ 평가영역 · 부문 · 준거 판정결과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P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P	1.1.1 교육목표	P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P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P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P
1.3 자체평가	P	1.3.1 자체평가 수행	P
2. 교육			P
2.1 교육과정	P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P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P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P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P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P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P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P

2.2 교수·학습	P	2.2.1 수업 규모	P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P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P
2.3 학사관리	P	2.3.1 학사관리 규정	P
		2.3.2 성적관리	P
		2.3.3 수업평가	P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P
2.4 교육성과	P	2.4.1 졸업생의 취업률	P
		2.4.2 교육만족도	P
3. 대학구성원			P
3.1 교수	P	3.1.1 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준거)	P
		3.1.2 교원임용의 절차와 방법	P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P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P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P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P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P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P
3.2 직원	P	3.2.1 직원 규모	P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P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P
3.3 학생	P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P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P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P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P
4. 교육시설			P
4.1 교육기본시설	P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P
		4.1.2 강의실 확보율	P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P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P

4.2 교육지원시설	P	4.2.1 기숙사 확보 현황	P
		4.2.2 학생 복지시설	P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W
4.3 도서관	P	4.3.1 도서관 운영	P
5. 대학재정 및 경영			P
5.1 재정 확보	P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P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P
		5.1.4-1 세입 중 기부금 비율(국공립대)	P
5.2 재정 편성 및 집행	P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P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P
		5.2.3 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P
5.3 감사	P	5.3.1 감사제도	P
		5.3.2 감사결과 활용	P
6. 사회봉사			P
6.1 사회봉사	P	6.1.1 사회봉사 정책	P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P

2. 종합의견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평가결과 전 영역에 걸쳐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910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설립된 공립 어의동실업보습학교를 모태로 1980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이후, 1988년 서울산업대학교, 2010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2012년 일반대학으로 전환된 오랜 역사만큼이나 학제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온 대학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립대학으로서 성실, 창의, 협동을 교훈으로 삼고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융합적 사고, 윤리적 인성, 실제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사회의 창의 인재양성의 교육이념 실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Vision 2020」을 통해 과학과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해서 앞으로 국내 10위, 아시아 50위, 세계 300위권 대학 진입이라는 원대한 도전을 이루려는 구성원들의 높은 열정과 헌신이 돋보였다.

6개 평가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세 가지 요소로 기능하는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가 체계적이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학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 5대 교육목표가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이다. 교육목표에 기초하여 설정한 다섯 가지 인재상은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해 보인다. 다만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와 인재상이 반복과 중첩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이 필요하며 단과대학별 인재상이 동일한 수준에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교명 변경 및 일반대학으로의 전환과정에서 2012년에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인 「SEOUL TECK DREAM 2020」 적절한 체제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적극 반영하여 특성화의 키워드를 ‘산학협력’으로, 특성화의 목표를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설정한 전략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장기발전과 특성화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문별 소요 예산과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분명하게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분야에 대한 대외 홍보 전

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교육과정체제와 관련해서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모두 인재상과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어 편성 및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일반대로 전환 하면서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세분화된 학문 분야를 유사한 학문별로 통합하여 학문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통합된 전공영역의 트랙교과와 달리 공통된 학문간 융합교과목 개설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형대학을 중심으로 융복합적 디자인 실기 교육을 운영하는 등 강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기존의 '기초교육학부'를 인문사회대학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교양교육 수행기관으로서 '단과대학' 수준으로 격상시켜 '교양대학' 또는 '교양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직과정'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조직 운영은 교수학습지원팀, e-러닝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예산 지원과 함께 교무처, 학생처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센터의 조직을 교수지원팀, 학습지원팀, e-러닝지원팀으로 세분화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학사관리와 관련해서는 학칙 및 학사 규정에 명시된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학사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다. 강의평가제도와 관련해서 학사관리 규정이나 내규의 신설을 통해 강의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완·보장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강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강의평가서를 개발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충원과 관련해서 교원임용에 관한 규정과 전형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매우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나 386명의 전임교원 중에서 교수 직급이 과반수를 넘어 직급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젊고 유능한 교원의 지속적인 충원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업적평가는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 교양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교수의 연구업적에서 저역서 실적과 교내연구비, 국내 논문 실적, 국외 특허 등록 실적 등이 다소 미흡하므로 이러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해 대학측의 지표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직원의 경우 1년에 정기적으로 직원평가의 결과를 승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으

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원 인사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매우 우수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처 산하 학생생활 상담팀에서 2인의 전문 상담전문가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상담지도를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학생상담을 위해 학생생활연구소 혹은 학생상담센터 등의 독립적인 기구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써 충분한 교지 확보를 바탕으로 기존 교사건물의 리모델링, 다빈치관 신축 등 새로운 교사건물의 건립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밖에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확보, 실습기자재 등 교육과 관련한 제반 시설 역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의 경우 수용률이 현재 국립대학 평균 수준인 25.1%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며 신입생의 60% 정도가 지방 학생인 점, 학생 정주조건이 안정이 신입생 유치에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률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여학생휴게실, 서점, 체력단련실, 커피전문점 등 주요 필요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나 학생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점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학생 복지시설의 경우 2008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교육부 평가에서 개선요망으로 판정 받은 이후 명확한 사유 없이 2011년 평가에는 불참하는 등 대학차원의 장애학생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전반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시설 영역은 국립대학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나 향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서울의 대표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잘 갖춰진 인프라에 소프트웨어 측면을 가미해서 강점을 극대화 시켜 나간다면 더욱 좋은 교육시설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SEOUL TECK DREAM 2020」 장기발전 계획에 의한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 후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산학협력단 수입증대, 기부금 수입확대, 대학 수익시설 활용 극대화, 계약학과 확대, 국책사업 적극 유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편성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국립대학교 회계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절차와 심의과정이 대학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내·외부 감사결과를 통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전년도 결산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요약하고 시각화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감사를 위한 노력과 감사의 기능이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봉사와 관련해서 2006년에 사회봉사단을 설립했지만 사회봉사활동을 책임지고 전담하는 독립기구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회봉사센터와 같은 형태로 전환한 후, 사회봉사활동을 책임지고 전담하는 독립 기구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사활동 교과목 개설의 경우 현재 활동 중심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론 중심의 교과목 개설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칙에 사회봉사 관련 조항을 독립 조항으로 설정·기술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브랜드 가치와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면 더욱 대학의 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경쟁력 갖춘 대학으로 평가되지만, 이 보고서에는 몇 가지 부분에서 보완 및 개선을 요청하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구성원들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소통의 기회 부여를 확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과 협력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서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시설환경과 등록금 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고등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살려 나아가면 서울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기에 위한 충분할 것이다. 이를 위한 「SEOUL TECK DREAM 2020」 장기발전계획이 구성원 모두의 열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우수한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평가영역별 결과

1영역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은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모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교육 공급자로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의 질 보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종합의견

- 1영역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발전계획 및 특성화, 자체평가 3개 부문에서 모두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주요 현황
 - 대학의 교훈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학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 5대 교육목표가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인
 - 교명 변경 및 일반대학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이념이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2년에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인 「SEOUL TECK DREAM 2020」 적절한 체제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산학협력’, ‘융복합 및 디자인 분야 특성화’, ‘따뜻한 감성과 인성을 지닌 과학기술 인재’로 설정한 발전방향 및 특성화 분야의 전략은 적절하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대학의 실력이나 경쟁력 또한 충분함
 -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방향과 전략이 대학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유기적 관련성을 형성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의해 2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 자체평가의 체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 체계 또한 적절함
 - 자체평가의 평가지표와 체제는 적절할 뿐만 아니라 2011년도 대학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의 내용 또한 충실함
- 강점
 - 대학의 발전방향 및 특성화 분야의 전략이 적절하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대학의 실력이나 경쟁력 또한 충분함
 - 3년 단위로 구획한 후 각 부문별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중장기 발전계획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노력은 적절함
 - 세부 사업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주기적 점검의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내용에 반영하는 노력은 적절함

- 자체평가 결과를 행·재정 보상 체계와 연계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 및 부서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은 적절함

□ 개선점

-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작업이 필요함
- 5대 교육목표로 제시한 ‘윤리적 인성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융합적 사고교육’, ‘창의적 발상교육’, ‘실제적 설계교육’을 위한 차별화된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기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추진에 따른 부문별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및 특성화계획의 전문 인력 충원 등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 평가부문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
1.3 자체평가	●

평가부문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대학은 국가·사회의 요구 및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목적 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등 대학 나름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충족 (Pass)	미흡 (Weak)	미충족 (Fail)
1.1.1	교육목표	●		

1.1.1 교육목표

대학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성실’, ‘창의’, ‘협동’의 교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학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 5대 교육목표가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인
- 5대 교육목표에 기초하여 설정한 다섯 가지 인재상은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함
- 대학구성원들이 교훈이나 교육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음
-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인 교훈과 교육이념, 교육목표 사이의 위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와 인재상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이 필요함
- 단과대학별 교육목적을 신설하는 작업이 필요함
- 5대 교육목표로 제시한 ‘윤리적 인성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융합적 사고교육’, ‘창의적 발상교육’, ‘실제적 설계교육’을 위한 차별화된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평가부문 1.2 ▶ 발전계획 및 특성화

대학은 요구분석에 근거한 실현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대학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총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총족 (Fail)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은 대학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명 변경 및 일반대학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이념이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2년에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인 「SEOUL TECK DREAM 2020」의 완성도는 적절한 체제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발전계획 수립의 완성도와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2009년에 실시한 ‘한국생산성본부’의 의뢰를 통한 SWOT 분석 및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적절함
- ‘과학과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세계 속의 대학’의 비전과 ‘국내 10위권 대학 아시아 50위권 대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3대 전략 방향 및 11대 핵심 전략의 방향과 초점은 적절함
- 별도의 독립된 책자 형태의 특성화계획은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장기발전계획의 1장에서 특성화계획 및 홍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적극 반영하여 특성화의 키워드를 ‘산학협력’으로, 특성화의 목표를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설정한 전략은 적절함
- 특성화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립한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은 적절함
-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방향과 전략이 대학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형성하고 있음

- BUTTOM-UP 방식의 과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교책 특성화 3개 분야와 단독과제 2개 분야 총 17개 과제는 적절함
- 장기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추진에 따른 부문별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및 특성화계획의 전문 인력 충원 등은 구체적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함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대학은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3년 단위로 구획한 후 각 부문별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중장기 발전계획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노력은 적절함
- 세부 사업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주기 점검의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는 노력은 적절함
- 연도별 특성화 추진 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 결과를 차년도 예산 지원과 연계하는 노력은 적절함
-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분야의 대외홍보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평가부문 1.3 ▶ 자체평가

대학은 관련 법령에 의거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 대학 경영의 개선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충족 (Pass)	미흡 (Weak)	미충족 (Fail)
1.3.1	자체평가 수행	●		

1.3.1 자체평가 수행

대학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과 대학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규정 제33호의 자체평가 규정에 의해 2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자체평가의 체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자체평가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실 무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 체계 또한 적절함
- 대학자체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절차나 과정이 적절함
- 대학기관평가인증에 활용되는 평가영역과 평가부문을 반영한 평가 지표와 체제는 적절할 뿐만 아니라 2011년도 대학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함
- 자체평가 결과를 행·재정 보상 체계와 연계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 및 부서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은 적절함

대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엄격하고 합리적인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학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종합의견

- 2영역 교육에 대한 평가결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 등 등 4개 부문 모두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함
- 주요 현황
 - 교육목표와 연계한 인재상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편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이 명확하며,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이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어 편성 및 운영되고 있음
 - 전공교육과정 수업에 있어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며, 현장적응성을 높이고 있음
 - 대학과 기업이 가진 각자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으로 상호 지속적·호혜적·상동적 산학협력을 추구해나가는 시너지 창출형 산학협력 제도로서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교수학습지원센터 조직 운영은 교수학습지원팀(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연구지원부), 이러닝지원팀(이러닝지원부, 행정지원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내 유관

기관(교무처, 학생처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그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교수·학습과 관련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 전개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졸업생 취업률이 72.1%로써 적정수준(45%)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배출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점

- 지역기업과 대학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가진 각자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으로 상호 지속적·호혜적·상통적(相通的) 산학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시너지 창출형 산학협력 제도로써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세분화된 학문 분야를 유사한 학문별로 통합하여 학문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음
-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통합된 전공영역의 트랙교과와 달리 공통된 학문간 융합교과목 개설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형대를 중심으로 융복합적 디자인 실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매년 취업률 1위를 달성하여 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음

□ 개선점

- 대학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의 위계성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단과대학별 교육목적, 학과별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진술 형식에 있어 일관된 체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초교육학부'를 인문사회대학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교양교육 수행기관으로서 '단과대학' 수준으로 격상시켜 '교양대학' 또는 가칭 '교양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인문사회대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교양교육학부가 되면 인문사회영역, 기초과학영역, 교직영역으로의 역할 규명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 교직과가 독립적 교육체제로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예산, 공간, 조교인력 등 교직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적·물적 자원 보강과 향후 교직과정 평가에 대비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재설계하고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대비가 요구됨. 이와 함께 ‘교직과정’ 교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일반 교양 교과목의 수강자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강의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교양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강신청 등 전산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조직 편제에서 ‘자연과학대학’의 설치와 함께 관련 학과의 조정이 요구됨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졸업자가 다수 있으나, 보다 이수가 용이하도록 학점 수를 조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전공 필수 과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
-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학과의 경우 잦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에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는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사관리 규정이나 내규의 신설을 통해 강의 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완·보강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필요함
- 강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강의 평가서를 개발하여 강의 평가를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강의 평가 결과 하위수준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활용을 안내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학사경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학습 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작업이 필요함
- 만족도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후조치를 통한 교육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학생들의 교양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늘려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조직을 교수지원팀, 학습지원팀, e-러닝지원팀으로 세분화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확대 및 개편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인력개발센터에 편제되어 있는 ‘학생취업지원팀’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하여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생활상담팀’도 대부분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생생활 상담소’ 체제로 분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부문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2.1 교육과정	●
2.2 교수·학습	●
2.3 학사관리	●
2.4 교육성과	●

평가부문 2.1 교육과정

대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하는 학계의 성과와 사회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대학과의 교류를 통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총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총족 (Fail)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대학의 교육과정 정책 및 편성은 대학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 교육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육목표와 연계한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편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이 명확함
-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이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어 편성 및 운영되고 있음
- 단과대학별, 학부(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도 대학의 교육목표와 부합되며, 교육과정 운영도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다만, 대학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등의 위계성을 검토하고 단과대학별 교육목적과 학과별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간에 일관된 체계가 유지되도록 진술될 필요가 있음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을 학문적·사회적·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전인적,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통필수 교양과정, 철학과 윤리 등 5개 영역별 교양 필수과정, 전공 기초관련 계열공통교과인 학문기초과정 등으로 편성하여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양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어 교과목, 체육 교과목을 비롯한 다양한 교양선택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이수학점 비율은 단과대학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적정비율을 유지 하고 있음
- 빠른 시일내에 기존의 '기초교육학부'를 '단과대학' 수준으로 격상시켜 '교양대학' 또는 가칭 '교양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직과정'교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일반 교양 교과목의 수강자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강의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직 편제에서 '자연과학대학'의 설치와 함께 '기초교육학부'에 소속된 관련 학과와 교수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대학은 학생의 입학 후 졸업까지 달성될 역량 개발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학생들이 재학기간동안 달성할 전공역량 개발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학점 비율이 학과 특성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비율은 적정함
- 다만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전공 필수 과목의 비율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가 용이하도록 학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대학은 전공교육과정 수업에 있어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며, 현장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비율이 인문사회계열 20.9%, 자연과학계열 39.9%, 공학계열 46.1%, 예체능계열 7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음
- 전공교육과정 수업에 있어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며, 현장적용성을 높이고 있음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실험·실습계획서가 과목의 유형에 맞춰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고, 관련 실습실도 매우 잘 갖춰져 있음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대학은 산업체와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산학협력선도사업의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지역기업과 대학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가진 각자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으로 상호 지속적·호혜적·상통적(相通的) 산학협력을 추구해나가는 시너지 창출형 산학협력 제도로서 '가족회사 제도' 운영이 돋보임
- 산업체 요구 기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의 교류 협정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대학은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학생의 선택권과 수업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학생 비율은 0.69%로 기준값 0.2%를 충족함
- 학생의 선택권과 수업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실적이 있음
- 향후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학술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대학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조직 및 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육과정 운영 관련 위원회는 교양교육위원회, 전공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통합 위원회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구성원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단과대학장 추천에 의거 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외부 기업 및 산업체 자문위원들로부터 지역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등 분석을 통하여 학문 발전과 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음

평가부문 2.2 교수·학습

대학은 적정수준의 강좌별 학생 수 유지, 충실한 강의계획서 작성을 통해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적용하여 교수·학습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총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총족 (Fail)
2.2.1	수업 규모	●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		

2.2.1 수업 규모

대학은 강좌당 학생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개설 비율은 2013년도 1학기(23.03%)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기에서는 모두 기준값 25%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2013년도 2학기: 30.07%로 상향되고 있음), 101명 이상 대규모 강좌 개설 비율은 매학기마다 기준값 2.5% 이하로 모두 기준값을 충족함
- 강좌당 학생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음
- 향후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개설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대학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수·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CTL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지도는 높은 편임
- 교수학습지원센터 조직 운영은 교수학습지원팀(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연구지원부), 이러닝지원팀(이러닝지원부, 행정지원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내 유관기관(교무처, 학생처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소장 1명, 교수·학습지원팀 2명, 이러닝지원팀 2명으로 구성되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CTL관련 전문가를 충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대학은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개선활동 전개 등 지속적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수·학습과 관련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 전개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자들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멀티 미디어 학습자료 개발도 지원하고 있음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신입교수 워크숍, 교육분야 우수 교수 및 강사 포상, 연구 지원, 교수법 워크숍, 강의개선(CQI)보고서 지원, 학습동아리(Withus) 지원,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멀티미디어 강의계획서 및 학습자료 개발 사업을 통하여 학내 e-러닝 강좌 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대학은 성적관리, 수업평가 등 엄정하고 적절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총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총족 (Fail)
2.3.1	학사관리 규정	●		
2.3.2	성적관리	●		
2.3.3	수업평가	●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		

2.3.1 학사관리 규정

대학은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합리적이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학칙 및 학사 관리 규정을 통하여 학사관리 규정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학사 운영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학사 운영의 제·개정 절차는 적절함
- ‘수강신청 장바구니 제도’ 도입, ‘조기졸업 요건 개정’ 등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사관리 제도 개선 실적은 적절함
- 학사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임

2.3.2 성적관리

대학의 성적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학칙 및 학사 관리 규정 제4장 '시험과 성적' 조항에 의해 엄정한 성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학사관리 규정 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A등급 30% 이내, A+B등급 70% 이내, C등급 이하 30% 이상의 성적 등급 비율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음
- 2013년도 1학기에 개설한 2403개의 교과목 가운데 84개 강좌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위 상대평가 강좌수 비율 3.5%는 적절함
- 2013년도 1학기에 개설한 2403개의 교과목 가운데 525개 강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절대평가 강좌 비율 21.85%는 대상 교과목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성적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임

2.3.3 수업평가

대학은 타당한 평가문항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강의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의평가 문항을 조정한 작업은 적절함
- 강의평가 결과는 매년 전임교원의 교수 업적평가와 재임용 등의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 우수교원 포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적절함
- 2013학년도 1학기 전체 개설 강좌 2308개 중 2242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97.14%의 강의평가 실시 비율은 적절함
- 강의평가 결과 하위수준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활용을 안내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매년 강의평가 우수 교원 2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교수·강사 선발제도는 적절함
-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사관리 규정이나 내규의 신설을 통해 강의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완·보장하는 작업이 시급함
- 강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강의평가서를 개발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함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는 적절하나 공개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대학은 성적우수자에 대한 동기유발책 및 보상,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성적우수자에 대한 동기유발과 보상을 위해 ‘장학생 선정 및 지급 규정 제정안’에 근거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성적우수 장학제도는 적절함
-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해 성적우수 장학금 이외에 시행하고 있는 ‘어의 장학금’, ‘능력향상 장학금’, ‘능력 인증 장학금’, ‘고시반 장학금’ 등 다양한 성적우수 장학 제도는 적절함
- 최근 3년간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수준은 적절하며 학생들의 면담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함
- 학사경고자들을 각 학과에 통지하여 개별 학과 차원에서 지도교수 상담을 실시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후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지도교수 개인 면담 결과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 학습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는 적절하며 그 실적 또한 적절함
- 지도교수 개인 면담 결과 진로상담 및 심리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생처에 진로 및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제도는 적절하며 그 실적 또한 적절함
- 학사경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학습 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작업이 필요함

평가부문 2.4 교육성과

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배출 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총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총족 (Fail)
2.4.1 졸업생의 취업률	●		
2.4.2 교육만족도	●		

2.4.1 졸업생의 취업률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졸업생 취업률이 72.1%로 기준값 45%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음
-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배출 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종합인력개발센터에 편제되어 있는 ‘학생취업지원팀’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하여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생활상담팀’도 대부분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생생활 상담소’ 체제로 분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2 교육만족도

대학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관리 및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편성 및 운영, 교수·학습, 교육자원 및 환경, 학사행정 서비스, 대학지원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해서 대학 전체의 교육활동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만족도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후조치를 통한 교육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교수를 확보하고 교수의 전문성 함양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확보와 동시에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능력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을 선발, 충원,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종합의견

- 3영역 대학구성원에 대한 평가결과, 교수, 직원, 학생의 세 부문 모두 인증기준을 충족함
- 주요 현황
 - 2012년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글로벌사회의 창의인재양성’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수, 학생, 직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수교원 충원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임용에 관한 규정과 전형지침이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현재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전임교원 확보율은 64.2%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한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최근 3년간 5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편으로 이는 신규 전임교원 확충

이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냄

- 「SEOULTECK DREAM 2020」 발전계획에 따라 과학·인문·예술간 융합적 사고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 고양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
- 교수의 연구업적에서 저역서 실적과 교내연구비가 기준값에 미달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개선되고 있고, 특히 대학정책이 SCI급 논문실적에 집중했기에 상대적으로 국내 논문 실적이 열세였으나 향후 개선될 것임
- 직원 1인당 학생수가 53.6명으로 적절한 규모의 직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원 인사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1년에 2-3회의 정기적인 직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음
-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매년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의 대학의 설비 및 시설 확충과 대학의 특성화계획에 대한 자긍심과 기대감 높음

□ 장점

- 교원임용에 관한 규정과 전형지침이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우리나라 대학 최고 수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규정을 갖추고 있음
- 대학본부의 주도로 각 단과대학의 행정실과 학과에 국고조교 48명과 기성회조교 34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각 단과대학은 해당 대학의 특성에 따라 총 46명 규모의 학사조교와 96명의 연구조교를 운용하고 있음
- 국립대로서 학생대비 직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업무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만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구비하고 있음

□ 개선점

- 연구업적평가에서 업적을 논문화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제도의 개선이 단기간에 요구됨
- 수도권외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위상에 맞추어 국외 특허 등록 건수를 증대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이 2년 이내에 구축되어야 함
- 보다 체계적인 학생상담을 위해 학생생활연구소 혹은 학생상담센터 등의 독립적인 기구로의 제도적 개선이 단기간내에 요구됨

○ 평가부문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3.1 교수	●
3.2 직원	●
3.3 학생	●

평가부문 3.1 교수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수한 전임교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제도 운영,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수는 대학의 목표 달성에 충분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연산관협력을 통하여 연구비를 확보하고,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 및 기술과 특허의 환원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충족 (Pass)	미흡 (Weak)	미충족 (Fail)
3.1.1	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준거)	●		
3.1.2	교원임용의 절차와 방법	●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		

3.1.1 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원활한 교육 및 학생지원을 위하여 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전임교원 확보율이 2013년 정보공시 기준 64.2%로 기준값 61%를 충족함
- 2012년 3월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전임교원 확충을 위한 장기 플랜을 구축함
- 2012년도에 신입교원 19명, 2013년도 8명을 채용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이 63-64%대로 진입함
- 2013년도 현재 총 386명의 전임교원은 교수 185명, 부교수 81명, 조교수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직급이 상대적으로 다수인 직급간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
- 계열별 전임교수 분포를 볼 때 자연과학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편제정원 기준으로 44.8%에 불과하므로 시급한 교원확보가 요구되며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도 최소한 10%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가 필요함
- 다만,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편제정원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114.3%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기초교양학부 소속 교수(22명)를 인문사회계열의 전임교원으로 분류한 연유에 기인함
- 교양교육(civic education)의 안정화와 수월성 제고를 위해 기초교육학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이 추구하는 글로벌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의 새로운 학과의 신설이 요청됨

3.1.2 교원임용의 절차와 방법

대학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원임용에 관한 규정과 전형지침이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매우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 초빙분야별 세부 지원자격은 각 초빙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공통적으로 최소 논문실적을 200%로 한정함으로써 신진 학자의 교수임용에 대한 진입장벽(entry barrier)을 낮추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사료됨
- 대학의 공식 신입교원 임용지침인 '2013년 제 1차 교수초빙 전형기준'은 단계별 심사와 복수의 최종후보자 선정 등 임용지원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형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예컨대, 제2장 7조의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외부 심사위원 위촉과 제 4장 제 17조 최종합격후보자가 동수일 때의 순위 결정에 관한 지침은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대학은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해 비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2013년 정보공시 기준 50.59%로 기준값 55% 이하를 충족함
- 다만, 최근 3년간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2011년 51.3%, 2012년 50%, 그리고 2013년 50.59%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전임교원 확충(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8명)이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반증함
- 현재 총강의의 38.25%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548명)의 강의담당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012년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에 맞추어 전임교수 확보율의 상승을 위한 대안으로 기금교수 확보를 시도하였음
- 정년트랙 1인을 제외한 27인의 비정년트랙 기금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인정되며 이에 2015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년트랙 기금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 총 강의시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비전임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향후 대학발전의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사료됨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육, 연구, 봉사의 3영역으로 구성된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점은 교육 45%, 연구 40%, 봉사 15%로 분류된 점이 특징임
- 각 영역별로 전공(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별로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이 분류되어 있음
- 다만, 영역별 평가에서 교육중심교원 혹은 연구중심교원으로 특화하는 제도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문학과 예체능전공 등 연구업적을 논문화하기 어려운 분야의 교수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평의회를 중심으로 전 교수에 대한 교과부의 성과급연봉제의 포괄적 적용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됨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대학은 교수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물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 고양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
- 교수학습센터는 정기적으로 교수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수들의 인지도는 높은 편임
- 최근 3년간 연구년 교원비율이 6.6%, 7.2%, 5.1%(2013년 상반기)로 양호함
- 대학본부의 주도로 각 단과대학의 행정실과 학과에 국고조교 48명과 기성회조교 34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각 단과대학은 해당 대학의 특성에 따라 총 46명 규모의 학사조교와 96명의 연구조교를 운용하고 있음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대학은 시간강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강사료와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시간강사 강의료는 2013년 정보공시 기준 70,907원으로 기준값 42,000원을 충족함
- 각 단과대학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락커를 갖춘 외래교수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
- 548명의 시간강사를 위한 자체적인 협의회 등의 조직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시간강사 강의료와 복지혜택이 다른 사립대학과 비교해 양호하여 시간강사의 만족도가 높음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교수는 대학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7개의 하위지표 중에서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과 교내연구비 지표를 제외한 5개 지표가 기준값을 충족함
-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 실적이 0.62편으로 기준값 0.50편을 충족함
-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 실적이 0.48편으로 기준값 0.10편을 충족함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실적이 0.57편으로 기준값 0.35편을 충족함
-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이 0.47편으로 기준값 0.05편을 충족함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이 0.05권으로 기준값 0.07권을 충족하지 못함
-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가 382천원으로 기준값 1,000천원을 충족하지 못함
-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가 46,318천원으로 기준값 10,000천원을 충족함
- 다만, 대학당국은 2013년도 예산에 교내연구비 용도로 18억 2천만원을 배정하여 전임교원 1인당 약 580만원의 교내연구비를 확보하였음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이 기준값을 미달한 이유는 대학조직에서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 대학의 연구성과 증대를 위한 정책이 SCI급 논문실적에 집중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국내 논문 실적의 증가는 국제 논문 및 SCI급 논문 실적이 미치지 못하였음
- 향후 대학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력 증대를 위해 저역서 발간과 국내 논문의 증진에 힘써야 함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대학은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산업에 환원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6개 지표 중에서 국외 특허 등록을 제외한 5개 지표가 기준값을 충족함
- 기술이전 건수가 20건으로 기준값 4건을 충족함
- 기술이전 수입료는 458,820천원으로 기준값 10,000천원을 충족함
- 국내 특허 출원은 122건으로 기준값 10건을 충족함
- 국내 특허 등록은 54건으로 기준값 5건을 충족함
- 국외 특허 출원은 5건으로 기준값 1건을 충족함
- 국외 특허 등록은 0건으로 기준값 1건을 충족하지 못함
- 국외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고비용의 위험성 때문에 교수 개별적인 국외 특허 노력이 성사되지 못하였음
- 다만, 산학협력단의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교수의 선도적인 작업에 후속적인 보상을 지원하는 리임베스먼트제(reimbursement)를 2013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임
- 올해 정년퇴임하신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국외 특허 4개를 대학에 양도하여 4건의 신규 국외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음
- 수도권외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위상에 걸맞는 국외 특허 등록의 건수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평가부문 3.2 직원

대학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적절히 확보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충족 (Fail)
3.2.1	직원 규모	●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		

3.2.1 직원 규모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직원 1인당 학생수가 2013년 정보공시 기준 53.6명으로 기준값 70명을 충족함
- 총 237명의 직원은 기성회직 48명, 일반직 75명, 기술 및 기능직 84명, 계약직 29명 그리고 1명의 별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근래의 기성회비 수당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직과 기술 및 기능직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임
- 교수와 학생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규모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음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대학은 직원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원 인사제도를 구비하고 있음
- 1년에 2-3회의 정기적인 직원평가의 결과를 승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음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대학은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구비하고 있음
- 부서간 공동업무나 개선할 과제를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에 일정액(2백만원)의 지원실적을 확인함
- 직원복지의 수준은 평범한 편임

평가부문 3.3 학생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적 실현에 적합한 학생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충원, 유지하고 있으며, 상담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학업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총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총족 (Fail)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대학은 정부의 학생선발 정책 및 대학의 교육목표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요강에 의해 학생선발을 하고 있음
- 수시모집에는 다양한 전형유형(입학사정관, 일반, 특기자)을 활용하여 정원내 선발을 하며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한 정원외 선발(특성화 고교 졸업자 및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로 주·야간 각 80명을 선발하고 있음
- 정시모집에는 일반전형만을 활용하고 있음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2013년 정보공시 기준 99.9%로 기준값 95%를 충족함
- 최근 3년간 정원내 신입생 충원이 2011년 98.99%, 2012년 99.87%, 2013년 99.91%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 학생 선발은 제도화된 모집요강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짐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2013년 정보공시 기준 120.7%로 기준값 70%를 충족함
- 최근 3년간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2011년 109.3%, 2012년 113.2%, 그리고 2013년 120.7%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012년도 휴학률이 14.03%이고 중도탈락률(제적학생)이 3.12%인 점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학업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학생처 산하 학생생활상담팀에서 2인의 전문 상담전문가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상담지도를 하고 있음
- 학생처장이 겸직하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 아래 학생취업지원팀과 학생생활상담팀 2개의 부서를 두고 있고 각 부서에 예산집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실적이 있음
- 다만, 향후 보다 체계적인 학생상담을 위해 학생생활연구소 혹은 학생상담센터 등의 독립적인 기구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학습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대학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지원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종합의견

- 4영역 교육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교육기본 시설, 교육지원 시설 및 도서관의 3개 부문의 평가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함
- 주요 현황
 - 공과대학을 포함한 6개 단과대학과 7개의 일반·전문·특수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학생 13,000여명, 전임교원 350여명의 학사조직과 대학규모를 갖추고 있음
 - 교사 시설의 경우 대학본부, 다산관 등 30여개의 건물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음
 - 1910년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를 시작으로 경기공업전문대학, 서울산업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오래된 역사에 비해 매년 꾸준한 구건물 리모델링, 건물신축 등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시설은 현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음
- 강점
 - 교육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지 확보가 우선인 점에서 서울소재 대학의 평균

교지 확보 면적이 약 283,000m²인 것에 비해 약 507,000m²의 교지를 확보하고 있어 기반구축 상태가 양호함

-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은 전반적으로 구축 현황이 양호하며 재학생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
- 조형예술계열의 경우 작품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중심의 실습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음
- 공학계열의 경우 공동의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해서 기자재 활용도를 높이고 전문 실습지도인력을 통해 양질의 실습교육을 위한 제반환경을 잘 갖추고 있음
- 기숙사의 수용율은 다소 미흡하나 시설 측면에서는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등 다양하고 양질의 시설을 구비하는 등 학생 정주조건이 안정되어 있음

□ 개선점

- 강의실 활용률이 2012년 2학기 23.8%, 2013년 1학기 20.8%로 1년 평균 22.3%로 매우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적절한 공간 활용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멀티미디어 강의시설을 갖춘 강의실 확보율이 59%로 다소 낮은 편으로 이의 개선이 요구됨
- 일부 실험실의 경우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한 면이 있어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보완 노력이 필요함
- 학생 복지시설의 경우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5점 만점에 3점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한 대학차원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장애학생 복지시설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교육시설영역은 국립대학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나 기존 잘 갖춰진 인프라에 소프트웨어 측면을 가미해서 강점을 더욱 극대화 시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평가부문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4.1	교육기본시설	●
4.2	교육지원시설	●
4.3	도서관	●

평가부문 4.1 교육기본시설

대학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확보하며, 강의실, 실험·실습실,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충족 (Fail)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		
4.1.2	강의실 확보율	●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교사를 확보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사 확보율은 2012년 9월 정보공시 기준 106.3%로 기준값 100%를 충족함
- 2012년 구 무궁관, 다산관 등 일부 교사 시설을 철거하고, 2013년 구 다빈치관 철거 및 신 다빈치관 신축으로 교사 확보율은 112.8%로 증가·개선됨
- 충분한 교지 확보를 바탕으로 연차별로 건물을 신축하여 교사시설을 개선하고 있음

4.1.2 강의실 확보율

대학은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실 공간을 확보하고, 강의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이 1.58㎡로 기준값 1.2㎡를 충족함
- 강의실 활용률은 2012년 2학기 23.8%, 2013년 1학기 20.8%로 1년 평균 22.3%로 매우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적절한 공간 활용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멀티미디어 강의실 확보율은 59%로 타대학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지속적인 강의시설 개선 노력이 필요함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대학은 실험·실습·실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실험·실습실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2.89㎡로 기준값 2.5㎡을 충족함
- 특히 조형예술계열의 경우 작품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중심의 실습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음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실험실의 경우 실험실 안전관리일지 미작성, 안전수칙 안내문 부착위치 부적절, 개별 난방기 사용 등 안전관리 의식이 다소 낮고 소홀한 면이 있어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보완 노력이 필요함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대학은 실험·실습·실기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208천원으로 기준값 122.3천원을 충족함
-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실험·실습을 학과별로 실시하지 않고 공동의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전문 실습지도인력(실습 테크니션)을 배치해서 실험·실습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습교육을 강화함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숙사, 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총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총족 (Fail)
4.2.1	기숙사 확보 현황	●		
4.2.2	학생 복지시설	●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	

4.2.1 기숙사 확보 현황

대학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기숙사 수용률은 2012년 9월 정보공시기준 12.6%로 기준값 10%를 충족함
- 기숙사 수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13.1%로 개선되었고 지속적 개선을 위해 현재 900명 수용규모의 BTL기숙사 신축을 추진 중임
- 신입생의 60% 정도가 지방 학생인 점, 학생 정주조건이 안정이 신입생 유치에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률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숙사 생활 환경은 대체로 양호하며 만족도 역시 양호함

4.2.2 학생 복지시설

대학은 다양한 학생 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학내에 학생 복지시설로 여학생휴게실, 서점, 체력단련실, 커피전문점 등 주요 필요 시설을 잘 갖추고 있음
-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의 시설이 매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시설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하지만 학생만족도 조사결과가 5점 만점에 3점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학내 이동거리가 다소 부담되므로 셔틀버스 노선의 확대 운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2008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에서 개선요망 판정 받음
- 이후 2011년 평가에는 대학차원의 대응 없이 불참한 관계로 가장 최근 평가결과가 없음
- 2013년 실태조사 전까지도 장애학생관련 학칙 미반영, 위원회 미설치, 지원센터 미구축하는 등 장애학생 복지시설에 대해 대학차원의 인식이 미흡함
- 따라서 대학의 장애학생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추가 설치 및 장애학생 이동경로 확보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개선 노력이 필요함

평가부문 4.3 도서관

대학은 학생과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 전자자료, 정기간행물 등을 구비하고 있다. 도서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충족 (Pass)	미흡 (Weak)	미충족 (Fail)
4.3.1	도서관 운영	●		

4.3.1 도서관 운영

대학은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구입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는 153.97천원으로 기준값 50천원을 충족함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는 1.02명으로 기준값 1.0명을 충족함
- 하지만 도서관 직원수가 1.02명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열람실 및 노트북 전용시설 등 도서관 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대학은 교육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재정을 다양한 재원을 통해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효율적·합리적으로 재정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재정 및 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종합의견

- 5영역 대학재정 및 경영에 대한 평가결과, 재정확보, 재정편성 및 집행, 감사부분 등 3개 부분 모두 인증기준을 충족함
- 주요 현황
 -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 후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대학재정확충을 위해 산학협력단 수입증대, 기부금 수입확대, 대학수익시설활용극대화, 계약학과 확대, 국책사업적극유치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이 2013년 정보공시 기준 31%로 기준값 72.0%를 충족함
 - 예산편성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국립대학교 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편성하고 있음
 - 예산편성절차와 심의과정이 대학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은 31%로 기준값 72%를 충족함
 - 세입 중 기부금 비율이 1.86%로 기준값 0.4%를 충족함

- 교육비 환원율은 2013년 정보공시 기준 224.2%로 기준값 100%를 충족함
- 장학금 비율이 2013년 정보공시 기준 38.8%로 기준값 10%를 충족함
- 최근 3년간 장학금 비율이 증가추세이며 특히 2012년도에는 2배로 증가함
-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 대학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감사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통해 행·재정적 사안에 대해 예방 및 교정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음
- 내·외부감사결과를 통해 향후 업무추진시 개선 및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장점

-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이 2013년 정보공시 기준 31%로 기준값 72.0%를 충족하며, 세입중 기부금 비율이 기준값 1.86%로 0.4%를 충족함
- 교육비 환원율은 2013년 정보공시 기준 224.2%로 기준값 100%를 충족하며, 장학금 비율이 38.8%로 기준값 10%를 충족함

□ 개선점

- 전년도 결산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요약하고 시각화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성과감사를 위한 노력과 감사의 기능이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평가부문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5.1 재정 확보	●
5.2 재정 편성 및 집행	●
5.3 감사	●

평가부문 5.1 재정 확보

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원 확충을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총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총족 (Fail)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		
5.1.41	세입 중 기부금 비율(국공립대)	●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후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대학재정확충을 위해 산학협력단 수입증대, 기부금 수입확대, 대학수익시설활용극대화, 계약학과 확대, 국책사업적극유치의 노력을 하고 있음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대학의 세입 중 학생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학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은 31%로 기준값 72%를 충족함

5.1.4-1 세입 중 기부금 비율(국공립대)

사립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확보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세입 중 기부금 비율이 1.86%로 기준값 0.4%를 충족함

대학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 확보된 재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총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총족 (Fail)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		
5.2.3	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대학의 예산 편성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예산편성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국립대학교 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편성하고 있음
- 예산편성절차와 심의과정이 대학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원이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교육비를 환원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교육비 환원율은 2013년 정보공시 기준 224.2%로 기준값 100%를 충족함

5.2.3 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학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원이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장학금 비율이 2013년 정보공시 기준 38.8%로 기준값 10%를 충족함
- 최근 3년간 장학금 비율이 증가추세이며 특히 2012년도에는 2배로 증가함

평가부문 5.3 감사

대학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대학경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 판정결과

총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총족 (Pass)	미흡 (Weak)	미충족 (Fail)
5.3.1	감사제도	●		
5.3.2	감사결과 활용	●		

5.3.1 감사제도

대학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대학경영에 대한 감사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대학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감사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통해 행·재정적 사안에 대해 예방 및 교정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5.3.2 감사결과 활용

대학은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음
- 내·외부감사결과를 통해 향후 업무추진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전년도 결산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요약하고 시각화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성과감사를 위한 노력과 감사의 기능이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대학은 학교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지원·추진하여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종합의견

- 6영역 사회봉사에 대한 평가결과, 사회봉사 1개 부문에서 모두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주요 현황
 - 점증하는 사회봉사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한편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촉발하기 위해 교양과정에 활동 중심의 ‘봉사활동1, 2’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적절함
 -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의 하나인 ‘윤리적 인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의 소양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한 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봉사활동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재정 지원 실적은 적절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강점
 -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회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 사회봉사 실적이 우

수한 학생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는 적절하며 교직원들의 사회봉사 실적을 업적 평가 봉사 부문에 반영하는 제도 또한 적절함

- 사회봉사 교과목을 통한 활동 이외에 총학생회 주도의 농촌봉사활동과 미래국제재단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싹 멘토링' 제도를 통해 수행한 활동 실적은 적절함
- 교수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통해 교수들이 교외 지식봉사를 수행함
- 교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통해 수행한 직원들의 봉사활동 실적은 적절함

□ 개선점

- 향후 사회봉사단의 조직을 사회 봉사활동을 책임지고 전담하는 사회봉사센터와 같은 독립 기구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 활동 중심의 봉사활동 교과목 이외에 사회봉사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이론 중심의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학칙에 사회봉사 관련 조항을 독립 조항으로 설정·기술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자극하고 촉발하는 작업이 필요함

○ 평가부문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6.1 사회봉사 ●

평가부문 6.1 사회봉사

대학은 학교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지원·추진하여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평가준거 판정결과

평가준거		충족 (Pass)	미흡 (Weak)	미충족 (Fail)
6.1.1	사회봉사 정책	●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		

6.1.1 사회봉사 정책

대학은 학교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집중하는 사회봉사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한편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촉발하기 위해 사회봉사단 규정에 의해 교양과정에 활동 중심의 '봉사활동1, 2'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적절함
- 학생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봉사단 중심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적은 적절하나 앞으로 사회봉사단의 조직을 사회 봉사활동을 책임지고 전담하는 독립 기구인 사회봉사센터와 같은 기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함
- 대학구성원들에게 사회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 활동 중심의 봉사활동 교과목 이외에 사회봉사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이론 중심의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학칙에 사회봉사 관련 조항을 독립 조항으로 설정·기술했어 사회봉사활동을 자극하고 촉발하는 작업이 필요함
- 대학구성원들에게 사회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하는 제도는 적절하며 교직원들의 사회봉사 실적을 업적 평가 봉사 부문에 반영하는 제도 또한 적절함
- 대학에서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현재 시행중인 사회봉사 활동 이외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브랜드 가치와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대학은 구성원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회봉사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지원·추진하고 있다.

○ 판정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미충족(Fail)
●		

○ 주요현황 및 평가의견

-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의 하나인 ‘윤리적 인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의 소양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한 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봉사 교과목을 통한 활동 이외에 총학생회 주도의 농촌봉사활동 및 미래국제재단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싹 멘토링 제도’를 통해 수행한 활동 실적은 적절함
- 교수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통해 수행한 교수들의 교외 지식봉사 실적은 적절함
- 교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통해 수행한 직원들의 봉사활동 실적은 적절함
-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재정 지원 실적은 적절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